#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2015년 10월 23일 금요일 | 304호

발행인 정수현 | 편집인 한성호 | 발행처 홍보실
주소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대표전화 1577-7755

행복한 소통의 시작, 현대건설 이야기

## 서양과 동양, 문명과 첨단을 잇다

### 터키 보스포러스 제3교 건설공사 현장

보스포러스 해협의 밤을 밝히는 터키 보스포러스 제3교 건설공사 전경.

Photo News

터키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을 유유히 흐르는 보스포러스 해협은 고대부터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중요 수로(水路)로, 이를 차지하려는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는 세계 교량기술의 각축장이 돼 영국과 독일, 일본과 이탈리아가 세운 초장대 교량이 그 위용을 뽐내고 있다. 이곳에 현대건설이 사장-현수교 복합 방식의 초장대 교량을 세계 최초로 건설하며 글로벌 선진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유럽 대륙인 사르예르 가립체와 아시아 대륙인 베이코즈 포이라즈쿄이를 연결하는 이 교량이 완공되면, 현대건설은 글로벌 시장에 그 기술력을 인정받는 것은 물론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❶ 고강도 1860MPa 현수케이블 작업 모습. ❷ 상판 연결작업이 한창인 아시아쪽 현장 모습. ❸ 현수케이블 설치를 위한 캣워크 위에서 협의 중인 작업자들.

# 현대건설 가을 분양 키워드는 첨단·대단지·에코

##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힐스테이트 거제 등 10월 2458세대 분양

'분양대전'이라 불리는 가을 시즌이 돌아왔다. 10월 한 달간 전국에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집계된 아파트는 총 8만여 가구. 현대건설 역시 공동주택 중 국내 최초로 에너지 효율등급 '1++' 예비인증을 받은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를 필두로 흔전이 예상되는 가을 성수기 선점에 나선다.

### 송도 랜드마크시티의 미래비전을 열다

현대건설이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6·8공구 A11블록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송도 랜드마크시티에 처음 분양되는 일반분양 아파트다.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제로에너지 빌딩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 단지는 최첨단 에너지 생산 방식인 태양광전지 및 연료전지뿐 아니라 생산한 전기를 저장했다가 주로 밤시간에 사용하는 ESS(Energy Storage System) 등 '에너지 하이 세이브 시스템(Energy High Save System)'을 적용해 전기 및 난방 에너지 사용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했다. 또한 일부 세대에서는 조성 예정인 워터프런트 호수를 비롯해 서해바다와 인천대교의 탁트인 조망을 누릴 수 있다. 모델하우스는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 인근(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8-23번지)에 마련되며 23일 개관이다.

### 대단지 프리미엄 '힐스테이트 거제'

경남 거제시 상동동 110번지 일원에 총 1041세대가 들어설 '힐스테이트 거제'는 지하 2층, 지상 21~25층, 총 11개 동 규모를 자랑한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고현지구 생활권에 인접해 2009년 현대건설이 분양한 '거제 수월 힐스테이트'(715세대)와 더불어 거제를 대표하는 대단지 아파트로 실수요자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평지에 가까운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이 단지는 산책로와 계룡산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특징. 녹색 건축 및 건강친화형 주택 인증을 획득해 웰빙 라이프에 신경을 쓴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은 소형 위주의 오피스텔 분양에도 주력한다. 23일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에코 문정'을 시작으로, 11월에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에코 미사'와 '힐스테이트 킨텍스' 등이 그 주인공. 서울 동남권 최대 규모의 복합업무단지로 꼽히는 문정지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에코 문정'은 지하 6층~지상 15층, 총 531실 규모로 복층형 및 테라스형 타입 등 특화 설계를 도입했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힐스테이트 갤러리에 위치하며, 입주는 2018년 3월이다.

**10월 힐스테이트 분양 현장**

| 단지명 | M/H 오픈 | 위치 | 규모 |
|---|---|---|---|
|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 10월 23일 |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6·8 공구 A11블록 | B2층, 지상 17~36층 총 886세대 |
| 힐스테이트 거제 | 10월 30일 | 경남 거제시 상동동 110번지 일원 | B2층, 지상 21~25층 총 1041세대 |
| 힐스테이트 에코 문정 (오피스텔) | 10월 23일 |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8-4블록 | B6~지상 15층, 총 531실 |

# Hyundai E&C offers cutting-edge, large-scale, eco-friendly apartment complexes

Fall is often called a season for a "presale battle" in the housing market. During a month of October, a total of 80,000 new units of apartment houses are put on the market. Hyundai E&C is going all out to win the battle by offering Hillstate Lake Songdo which is expected to get an energy efficiency rating of 1++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mong multi-family buildings.

Korea's primary builder will provide Hillstate Lake Songdo in Songdo International City, Yeonsu-gu, Incheon Metropolitan City. It is the first apartment complex to be presold in Songdo Landmark City. Selected as a pilot project for "nearly zero energy building"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illstate Lake Songdo innovatively cuts back on costs for electricity and heating energy by means of the Energy High Save System. The eco-friendly system includes the use of solar cells and fuel cells, state-of-the-art energy production methods, as well as the Energy Storage System in which electricity is generated during the day and used at a later time at night.

Hyundai E&C also sets out to promote Hillstate Geoje located in 110 Sangdong-dong, Geoje-si, Gyeongsangnam-do. Hillstate Geoje consists of a total of 1,041 units of 11 buildings of 21 to 25 floors above ground and two basements. Located close to the Gohyeon district which enjoys popularity as a good residential area, the large-scale apartment complex is receiving a greater attention from those who have actual demand for apartment units.

# NEWS


- 독자 기술 개발 … 품질 향상, 원가 절감에 박차
- 힐스테이트 배구단, 순조로운 스타트!
- 2015 현대건설 기술대전 시상식 개최


## 그룹사 소식

### 정주영 명예회장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 11월 개최

**아산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정주영 명예회장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를 다음 달 개최한다.

위원회는 '아산 100년, 불굴의 개척자 정주영'을 주제로 정 명예회장의 생애와 철학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11월 18일에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기념 음악회가, 23일에는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정 명예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학술 심포지엄이 열릴 예정이다. 탄신일을 하루 앞둔 24일에는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기념식도 마련된다.

### GSIC,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현대종합설계**가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센터(GSIC)를 친환경 건축물로 설계한 공을 인정받아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인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10월 준공한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센터는 그린스마트 빌딩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실증시설이다.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를 비롯한 90여 종의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미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 LEED 플래티넘, 국내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 현장·부서 소식

### 구매본부, 2015년 하반기 동반성장 세미나 진행

**구매본부**가 지난달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계동사옥에서 '2015년 하반기 동반성장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협력사 대표 4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협력사 인증서 수여, 동반성장 체감도 설문조사, 우리 회사 동반성장 프로그램·외주시스템 소개,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구매본부 관계자는 "세미나에서 나온 협력사 의견을 반영해 복리후생 지원 확대 같은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품질혁신실, 철골 품질관리 역량 강화 위한 견학 실시

**품질혁신실**이 지난 13일 본사 품질직군 및 연구개발본부 직원의 철골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현대스틸산업 천안공장 견학을 진행했다.

이날 견학에는 품질혁신실, 전력기획실, 인프라연구개발실 등 우리 회사 직원과 외부 설계업체 직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대스틸산업 천안공장 강교·철교 제작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제작공장의 철골 용접 및 열처리, 도장 품질관리 과정을 견학했다.

# 독자 기술 개발 … 품질 향상, 원가 절감에 박차

## '연직파이프쿨링 공법', 국내 최초로 현장 적용 성공

우리 회사가 혁신적인 콘크리트 신기술을 개발해 국내 최초로 현장 적용에 성공했다.

'연직파이프쿨링 공법'은 옹벽·교각·교량 주탑 등 수직으로 긴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의 온도균열을 제어하는 신기술로, 시공성과 현장 적용성이 뛰어나다. 우리 회사는 이 신기술을 문정2구역 엠스테이트,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왕십리뉴타운 3구역, 화양대교 현장 등에 적용해 온도균열을 70% 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문정2구역 엠스테이트(왼쪽), 화양대교 현장(오른쪽)에 적용 중인 모습.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은 굳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화열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는데, 이는 공기 연장과 원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 우리 회사는 수직 파이프를 설치하고 냉각수를 주입하는 이 신기술 개발로 온도균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철근 배근 작업과 동시에 설치할 수 있어 공기 연장 없이 편리하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우리 회사는 현재 국내특허 2건의 등록을 완료했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국제 저명 학회지인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확장판(SCIE)에 논문을 게재한 데 이어 한국콘크리트학회 기술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향후 현장 적용을 확대해 구조물의 품질 향상과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현재 신기술 14건, 녹색기술 5건을 비롯해 국내특허 303건을 보유 중이며, 추가로 신기술 3건과 녹색기술 2건의 신규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수화열=시멘트가 응결·경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 Hyundai E&C's new technology improves quality and reduces costs

Our company has developed an innovative concrete technology and successfully applied it to construction project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vertical pipe cooling method is to control temperature cracks in large, vertical concrete structures such as retaining walls, piers and towers of bridges. The newly developed technology is highly constructible and easily applied to construction projects.

Our company successfully reduced temperature cracks by 70 percent or more in the course of its application to construction sites of Munjeong M-State Zone 2, Noryangjin Fish Market, Wangsimni New Town Zone 3 and Hwayang Bridge.

Heat of hydration that occurs while large concrete structures set and stiffen may cause cracks, which leads to delaying construction schedules and increasing costs. The new technology designed to install vertical pipes and put in coolant enables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emperature cracks in concrete. One of the biggest strength of the vertical pipe cooling method is to conveniently rearrange vertical pipes and rebar at the same time.

## 힐스테이트 배구단, 순조로운 스타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이 'NH농협 2015~2016 V리그'에서 3연속경기 풀세트 접전 끝에 2연승을 거머쥐었다.

힐스테이트 배구단은 11일 흥국생명과의 첫 원정경기에서 3-2로 패했지만 15일 GS칼텍스전, 19일 도로공사전에서 2-3 역전승을 거뒀다. 특히 19일 경기에선 에밀리가 24득점으로 활약했고, 양효진과 황연주가 나란히 16득점씩 보태며 공격트리오의 위력이 살아났다.

양철호 감독은 "특정 선수에게 공격을 몰아주기보다 모든 선수의 공격 가담을 주문하고 있다"며 "지난해 불안정했던 수비와 리시브를 보안하고 범실을 줄인다면 올 시즌도 분명 좋을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은 오는 2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IBK기업은행과 시즌 첫 홈경기를 앞두고 있다.

19일 도로공사와의 경기 모습.

## 2015 현대건설 기술대전 시상식 개최

우리 회사는 2일 서울 도곡동 소재 힐스테이트 갤러리에서 정수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업계 관계자, 대학(원)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현대건설 기술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기술대전에는 토목·건축·플랜트·환경 분야에서 총 200여 건의 기술·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세 차례의 사내외 전문가 심사를 거쳐 12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서울시립대의 'ICT를 활용한 재실자 기반 플러그인 기기제어' 과제는 Wi-Fi로 실시간 재실 정보를 수집·활용해 플러그인 기기를 자동으로 제어,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이다. 또한 금상을 수상한 ㈜아마다스의 '비콘(Beacon) 기능이 탑재된 IoT(Internet of Things) 도어록' 기술은 사용자 스스로 설치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하는 디지털 도어록으로, 현재 힐스테이트 아파트 내 특화 적용 아이템으로 검토 중이다.

이번 수상자들에게는 대상 1000만원, 금상 500만원, 은상 300만원 등 총 33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됐으며, 입상한 기업은 우리 회사의 협력업체로 즉시 등록돼 해당 기술의 특허 출원·등록을 지원받는다. 대학부문 수상자는 입사 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한편, 우리 회사는 오는 11월, 국내외 건설 엔지니어를 초청해 '2015 현대건설 기술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 사우디 Jeddah Prince Fawaz Housing 변전소 공사 수주

우리 회사가 15일 사우디 서부 전력청이 발주한 1억900만 달러 규모의 사우디 Jeddah Prince Fawaz Housing 변전소 공사를 수주했다.

이번 공사는 설계·구매·시공 및 시운전을 포함한 일괄 도급 프로젝트로, 우리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지다 지역에 380/110/13.8KV 규모의 변전소를 신설하고 기존 변전소의 확장 및 개보수를 맡았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유사 공사의 우수한 수행 능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향후 후속 공사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서 힐스테이트, 제7회 인공지반녹화대상 최우수상

우리 회사가 지난해 6월 준공한 강서 힐스테이트 현장이 7일 '인공지반녹화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인공지반녹화대상'은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주최, 환경부 후원으로 인공지반녹화 확대 보급과 우수 소재, 기술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올해는 작품 분야 3개, 행정분야 1개의 작품이 선정됐다. 인공지반 녹화란 인공적인 구조물 위에 인위적인 지형 지질의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강서 힐스테이트는 ▶Community ▶Art&Culture ▶Green&Eco를 콘셉트로 화곡의 옛 모습과 자연을 담은 '화곡 12경'을 조성했다. 특히 곰달래원(1경)과 하늘정원(7경) 등의 조경공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늘정원(7경).

PHOTO NEWS

### "가족과 함께 애사심·단결력 키운 축제의 날"

**제17회 평화통일마라톤 대회**

우리 회사 임직원 및 가족 780여 명이 10월 4일 임진각에서 문화일보·경기도·경기관광공사 주최로 열린 제17회 평화통일 마라톤대회에 참석했다. 임직원과 가족들은 오전 9시30분 임진각을 출발해 각자의 기량에 따라 풀코스·하프코스·10km·6km를 달렸다. 우리 회사는 2002년부터 다양한 마라톤 대회를 통해 애사심과 단결력을 다져오고 있다.

# ISSUE

중앙일보에서 발행하는 영어신문 'Korea JoongAng Daily'의 최신 뉴스를 〈사보신문〉에 연재합니다. 경제·건설·문화 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뉴스를 통해 생생한 비즈니스 이슈 및 영어 표현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사는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자체 편집했음을 알립니다.

## Photo trend reflects a longing for days past

Oct 07

With a few taps, anyone from a 70-something granny to a preschooler these days can take high-quality photos using their handheld gadgets and share them with friends or online.

But in an era of digital photography overload, some people still take the time to visit old-fashioned photo studios to capture special moments with black-and-white film.

"It seems like black-and-white photos are considered a type of high culture among young people who grew up with digital technology," said Yu Cheol-su, who runs a research institute on black-and-white photography.

"With abundant digital photos, black-and-white photos taken by manual film cameras are not something out-of-date anymore," explained Nho Myung-woo, a professor of sociology at Ajou University. "They are being rediscovered by people in their 20s and 30s."

Mulnamu Studio in Gye-dong, central Seoul.

This is the case of Kim Ah-young, 31, who often takes black-and-white photos.

"All my photos are colored so it is interesting to see myself in a black-and-white photo," she said.

Photos taken with manual film cameras can't be altered with Photoshop, which most consider to be the drawback of black-and-white photography. But enthusiasts like Kim consider it one of its charms.

Noh Hyun-jeong and Seo Byeong-deok, who will tie the knot later this month, decided to go retro by having their wedding photos taken in black-and-white at a studio that only uses film cameras, unlike most couples who opt for digital photo shoots.

"Black-and-white photos are like freshly cooked rice made by your mother," said Kim Hyun-sik, who runs Mulnamu Studio in Gye-dong, central Seoul, near Bukchon, a neighborhood known for its hanok or traditional Korean houses.

"Although your mother's rice is not cooked in a fancy pot, it tastes better than rice cooked in an expensive pot," he explained.

Kim, who used to work as a photographer for a daily newspaper, had the idea of opening a black-and-white photo studio while he was studying the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especially the portrait paintings from the era.

"Back in those days,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for a painter was making a realistic portrait as close as possible to a subject," Kim explained. "I decided to do black-and-white photos because they are highly dependent on one's printing skills, unlike colored photos."

Studios specializing in black-and-white photography have sprung up in other neighborhoods as well, such as Yeonhui-dong and Ichon-dong, which are known for their historic houses and buildings from the 1970s and '80s.

## 사진, 지난 시절을 그리워하다

휴대전화를 몇 번 누르기만 하면 70대 할머니부터 유치원생까지 고화질 사진을 찍어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디지털 사진이 넘쳐나는 요즘 같은 시대에 따로 시간을 내 구식 사진관을 방문하고 흑백필름으로 특별한 순간을 담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흑백사진연구소 대표 유철수 작가는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흑백사진은 고급문화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노명우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도 "디지털 사진이 넘쳐나는 시대에 수동 필름 카메라로 찍는 흑백사진은 더 이상 옛것이 아니라 20, 30대들에 의해 재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흑백사진을 즐겨 찍는다는 김아영(31)씨의 경우가 그러하다.

김씨는 "제 사진의 대부분이 컬러였어서 흑백사진 속 제 모습을 보는 게 재미있어요"라고 말했다.

대부분 수동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포토샵으로 보정이 안 된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김씨와 같은 흑백사진 예찬론자들에게는 장점으로 여겨진다.

10월 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노현정·서경덕씨는 대부분의 예비부부가 디지털 사진을 찍는 것과는 달리 필름 카메라만을 사용하는 스튜디오에서 흑백사진으로 복고풍 웨딩촬영을 하기로 결정했다.

"흑백사진은 어머니가 새로 지어주신 밥과 같다." 한옥마을로 잘 알려진 북촌 계동의 '물나무사진관' 김현식 작가는 말했다.

김 작가는 "어머니의 밥은 멋진 솥에 지어진 건 아니지만 비싼 솥에 지은 밥보다 맛이 좋다"고 설명했다.

일간지 사진기자 출신인 김 작가는 조선시대(1392~1910년) 역사 중 초상화에 대해 공부하다가 흑백사진관을 열 생각을 하게 됐다.

김 작가는 "그 당시 화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대상에 최대한 근접한 사실적인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었다며 "흑백사진을 선택한 이유는 흑백사진은 컬러사진과 달리 작가의 인화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70, 80년대 역사적인 주택과 건축물로 잘 알려진 연희동과 이촌동 같은 지역에서도 흑백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사진관이 생겨나는 추세다.

▼Key expressions

gadget: (작고 유용한) 도구

retro: 복고풍의

spring up: 갑자기 생겨나다

## Power plant shut-down technology gets boost

Oct 06

The government plans to spend a total of 616.3 billion won ($530.6 million) to foster the nuclear power plant dismantling industry for the next 15 years.

The project follows the government's decision in June to permanently close the nation's first nuclear reactor, Gori 1, for safety concerns.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nfirmed Monday afternoon their joint investment plan to foster related technologies.

The government said the project will be an opportunity to explore the global nuclear reactor dismantling market, which is estimated to be about 440 trillion won, as the lifespan of nuclear reactors built in the 1960s through the 1980s across the world is coming to an end within two decades.

According to Deloitte and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in August, the life expectancy of more than 400 of 588 nuclear power reactors across the world is expected to expire by 2020. Nearly 74 percent of the old nuclear reactors are located in Europe, North America and Japan.

The technologies involved in research will include the design of the dismantling process, salt processing to decontaminate, physical dismantlement, care of nuclear waste and the facility, and soil recovery of the site after it is dismantled.

Korea has no dismantling experience with its commercial nuclear reactors but is known to have 70 percent of the technology compared to other advanced nuclear countries.

The government hopes to foster the dismantling technologies and carry out dismantlement of the Gori 1 reactor with locally-developed technologies through the R&D project. The detailed technology road map will be developed by the end of this year.

If Gori 1 permanently stops operation next year, the reactor goes into cooling of the spent nuclear fuel for the next six years. The government aims to complete developing basic technologies by 2021.

##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 Picture Description 형

Q Please describe the picture.

**SAMPLE ANSWER**

I'm glad to describe this picture. This is one part of the movie 『Gravity』. I can see dark space and a person wearing spacesuit.

On the left side, he or she seems to be in danger. The person lost his or her rope from somewhere and drop from it. There is a bright light on center and it seems that some explosion happened.

The right side of this picture, there is a part which seems like sky of earth. There are some debris between the person and earth. And at the bottom of the picture, there are some names of the movie and the topic 'Gravity'.

Actually I saw this movie before and it was awesome. I want to suggest you to see this movie sometime. It will be great for you. Thank you for listening.

### Picture Comparision 형

Q Please compare these two pictures.

**SAMPLE ANSWER**

I'm glad to compare these pictures, because I like music and instruments.

On the left side, there is a brown guitar. It has some strings on it and dark brown neck. Its body has light brown color and it may made by wood.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black huge piano without chair. Its body shines with black color. It has white and black keys. Its cover opened so that I may able to see its inside.

Those instruments have different colors and different ways to play. I can play the guitar with picking its string. And I can play the piano with hitting the keys. They also make different sounds. I like the guitar sound more than piano, even if I cannot play it.

That's all I can say about those picture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자료 제공 : SLI 교육원(02-541-7219)

## ENTERTAINMENT

### QUIDAM
### Jamsil Sports Complex, Big Top Theater To Nov. 1

Oct 14: A Latin word meaning "anyone," quidam denotes the enigma, the unknown. True to this etymology, "Quidam," Cirque du Soleil's ninth on-tour show, will keep viewers of all ages hooked with mystery and wonder.

First staged in 1996, "Quidam" presents a combination of acrobatic skills and traditional circus acts. It tells the story of a girl, Zoe, who uses creativity as an escape from her rather mundane world.

Performing in Korea this fall prior to its final show in the Netherlands next February, "Quidam" is celebrating its 20th anniversary.

There are no shows on Mondays; the show starts at 8 p.m. on weekdays; at 3 p.m. and 7 p.m. on Saturdays; and at 2 p.m. and 6 p.m. on Sundays.

# REPORT

우리 회사가 세계 최초로 사장교-현수교 복합 방식 장대교량인 터키 보스포러스 제3교를 건설하고 있다. 현장은 짧은 공기에도 불구하고 앞선 교량 기술력과 풍부한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1** 유럽쪽에서 바라본 터키 보스포러스 제3교 공사 현장. **2** 현수 케이블 설치 공사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직원들. **3** 주경간 케이블 인출 작업 모습.

우리 현장 최고 (87) 터키 보스포러스 제3교 공사 현장(TUBO3)

## 사장-현수교 복합 장대교량… 세계 교량건설 역사를 새로 쓰다

### 아시아-유럽 연결하는 상징적인 교량

터키 보스포러스 해협의 세 번째 교량이 우리 회사 기술력으로 건설되고 있다. 2013년 수주한 터키 보스포러스 제3교 건설 프로젝트는 터키의 유럽 지역 사르예르 가립체와 아시아 지역 베이코즈 포이라즈코이를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는 공사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선례가 없는 고난도의 사장-현수교 복합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수주 단계에서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총 연장이 2164m, 중앙 경간은 1408m, 교폭은 58.5m에 달하는 데다 교량 위로 왕복 8차로 도로와 복선 철로가 놓이기 때문에 현수교 방식으로만 지으면 교량이 많이 흔들려 기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단점을 사장교 방식으로 보완한 것이다.

이와 함께 1960MPa(메가파스칼)의 사장 케이블을 세계 최초로 적용하고 있으며 사장 케이블 길이는 최대 약 590m로 기존 세계 최장의 사장교인 러시아의 러스키(Russky) 교량이 갖고 있는 세계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터키 보스포러스 제3교 공사 현장은 2013년 4월 현장 개설 후 365일 하루 24시간 돌관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교량건설 역사상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공사에 임하고 있다.

### 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 발주처 신뢰 얻는 계기

보스포러스 제3교 건설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가 터키에서 최초로 수행하는 공사였기 때문에 공사 초기부터 수많은 난관에 부닥쳤다. 특히 터키 건설사 이츠타쉬(Ictas)와 이탈리아 건설사 아스탈디(Astaldi)의 합작법인인 ICA가 터키 정부기관 KGM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후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 회사에 엔지니어링부터 구매, 시공까지 전 프로젝트를 일괄 수행하는 EPC 방식으로 공사를 맡긴 상황이어서 여기에서 오는 어려움이 상당했다. 우리 회사는 하청사로 공사에 참여하지만 계약적으로는 ICA뿐 아니라 KGM으로부터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야말로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신 상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ICA의 시공사 선정이 지연돼 이는 부메랑으로 다시 우리의 계약 공기 단축으로 이어졌다. 또한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에, 하루하루 그때그때 발급되는 도면에 공사부는 애가 타 들어갔다. 공무 역시 업체 선정과 자재·장비 조달에 신경이 곤두섰고, 설계는 설계대로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나날을 2년 넘게 감내해 왔다.

'세계 최고 높이 322m 주탑' '세계 최초 사장-현수교 복합 방식의 하이브리드 교량' '세계 최장의 복선 철도가 병용된 현수교' '세계 최대 폭원을 갖는 교량'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역사적인 교량'. 이는 현장에 여러 손님들을 맞이할 때마다 자랑 삼아 소개하는 대표적인 키워드들이다.

그러나 이 안에는 우리의 피와 땀과 열정이 송두리째 녹아들어가 있다. 주탑이 높으면 고소작업에 대한 관리가 늘어나게 되고, 반듯하게 올라가면 좋으련만 비스듬히 경사진 주탑은 가설 중 안정성을 위해 수많은 가시설의 설치·해체가 반복되며 선행 관리에 한층 더 집중해야 된다. 사장 케이블의 앵커박스, 가로보, 패널, 탑정 새들, 그리고 스틸 데크 등 중량물의 무게는 최대 900t에 달하며 이 중량물들의 안양 횟수는 2003회가 훌쩍 넘는다. 그런데 보스포러스 해협의 좁은 입구로 불어닥치는 강풍과 높은 너울에 설치 공정이 번번이 발목 잡혀 그동안 노심초사한 우리 현장 직원들의 인고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나날을 머리 맞대고 고민했는지 헤아릴 수 없지만, 매번 마음가짐을 재무장해 다가올 난관에 기꺼이 도전해 왔다.

### 직원 간 신뢰로 결속력 으뜸

이러한 어려움들은 오히려 직원들을 신뢰로 뭉치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다른 해외 현장과 비교해 업무 강도가 높지만 체계있고,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70%. 현장은 사장교와 현수교를 통틀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322m 주탑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최근 유럽·아시아 사장 주경간 구간 총 1408m 중 922m의 상판 설치작업과 현수 주케이블 설치작업을 마무리했다.

현장 직원들은 사장교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길고, 철도교로는 세계 최장의 경간장을 지닌 교량이 될 보스포러스 제3교를 내년 말까지 준공하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공사에 매진하고 있다.

글=이정한 부장, 조남소 부장대우

전 공정 무재해 준공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마친 현장 직원들.

MINI Interview

송중호 현장소장

## 장대교량 첨단 기술력 인정받는 계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터키는 97%의 아시아 국토와 나머지 3% 유럽 국토로 이뤄져 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이 그 경계가 되고 있죠. 보스포러스 제3교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교량이자 세계 최초의 사장교와 현수교가 복합된 장대교량으로, 터키 국책사업 중에서도 최대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돼 업무 강도가 어느 현장보다 상당함에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 고마울 따름입니다.

보스포러스 제3교 공사 현장은 우리 회사의 '도전 DNA'가 빛을 발하는 대표적인 현장이라고 자부합니다. 공사 중반까지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불굴의 의지로 이를 극복해 내고 이제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부대공사와 기전공사를 준비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높이의 주탑에서 고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장 케이블·현수 케이블 설치, 강상판 공종에서 간섭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강상판 연결, 메인 케이블 설치 등 주공종 공사가 남아 있지만 향후 공기 단축은 물론 전 공정 무재해를 달성해 우리 회사가 세계 교량건설 시장에서 우월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M. Onat Caglayan Site Engineer

## Passion and Effort to Build Iconic Bridge between Asia and Europe

I'm working for the 3rd Bosphorus Bridge Project as a site engineer with Korean engineers since June 2013. My team completed the erection of suspension cables for this project after overcoming many great challenges.

Every step of this project has been totally new to me. But what was the most special about this project was to construct the 322-meter high pylon structure of this bridge after working night and day. Looking at the magnificent structure, I was really satisfied with what we did and realized that this bridge would be a truly iconic and aesthetically beautiful structure connecting Europe and Asia.

I really feel proud that we completed old and new stages by means of well planned engineering and management strategies of Hyundai E&C. Hyundai E&C members make all-out efforts on working on their tasks. They think, design and apply their own strategies at the every phase of a project, which plays a great role for the development of Hyundai E&C and Korean culture. My goal is to complete this project without any accident.

Turkish hospitality is well known around the world and I really put value on my relationship with coworkers. Please don't forget me even after this project ends.

## Hyundai E&C makes history in global bridge construction

### Iconic bridge between Asia and Europe

A third bridge over the Bosphorus Strait in Turkey is being constructed by Hyundai E&C on the basis of its technological prowess, Korea's primary builder won the deal in 2013 to build the Third Bosphorus Bridge in Turkey linking between Sariyer Garipce in the European side and Beykoz Poyrazköy in the Asian side.

Special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project which uses the unprecedentedly advanced cable-stayed/suspension hybrid solution. The 2,164-meter bridge, which has a main span of 1,408 meters over sea and a width of 58.5 meters, provides eight lanes of vehicle road and two lanes of railway. As a suspension bridge can sway so much that it may not be able to feature a rail system, stayed cables were adopted to provide extra stiffness.

On top of this, stayed cables require a 1,960 MPa strength level, the first application of its kind in the world, and the length of the cables used is up to about 590 meters, longer than those of the previous world's longest cable-stayed bridge, Russky Bridge.

### Actively seeking out solutions

Our company has faced many challenges even at the early stage of the project since it is the company's first construction project carried out in Turkey. Initially Ictas (Turkey)-Atakli (Italy) Consortium (ICA) had received the order to build the Third Bosphorus Bridge from KGM (the General Directorate of Highways), a state agency of Turkey. However, due to ICA's limited technological capability, Hyundai E&C was eventually awarded the EPC contract for the construction of the Third Bosphorus Bridge. Against the backdrop, although our company participated in the project as a subcontractor, we had to receive approval from KGM as well as ICA under the EPC contract.

What's worse was that ICA's delay in the selection of a builder forced Hyundai E&C to shorten its construction schedule. In the application of the fast-track way in which any error is not tolerated, all executives and employees of our company weathered through such difficulties for over two years.

The world's highest 322-meter tower, the world's first cable-stayed/suspension hybrid bridge, the world's longest suspension bridge with two railway tracks, the world's widest bridge, and the historic bridge connecting Europe and Asia: These are keywords that well represent the Third Bosphorus Bridge built by Hyundai E&C.

Our efforts and passion have been funneled into the bridge. We kept installing and dismantling a number of temporary structures to ensure the stability of the tower under construction and focused more on its geometry control. Heavy structures such as anchor boxes, cross beams, panels, tower saddles and steel decks weigh as much as up to 900 tons, and they were lifted up more than 200 times.

### Trust-based solidarity among employees

To overcome those difficulties, our employees could join forces together. Compared to other construction sites located abroad, our employees working at the Third Bosphorus Bridge construction site work more intensively but perform their duties in a more systematic and consistent manner. Currently, our company completed 70 percent of the project. We successfully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the 322-meter tower, which is the highest tower among cable-stayed and suspension bridges around the world, the installation of steel decks on a 922-meter section out of the main span of 1,408 meters between Europe and Asia, and the erection of the main cables of the suspension bridge part.

Our employees are currently dedicated to the completion of the Third Bosphorus Bridge, which is poised to be the world's longest suspension bridge and the railroad bridge with world's longest span, by the end of 2016.

# CITY

창의도시 ⑭터키

##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나라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길목에 놓인 터키는 정열과 에너지로 낮과 밤이 살아 있는 곳이다. 터키의 자랑은 역사와 문화를 품은 이스탄불과 문명과 역사의 중심지인 앙카라. 이 두 도시를 통해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터키를 간략하게나마 만나 보자. 글=정일주 〈월간 퍼블릭아트〉 편집장

**1** 여섯 개의 미나렛으로 유명한 술탄아흐메트 모스크 야경.
**2** 터키의 수도 앙카라 전경.
**3** 기묘한 바위 도시 카파도키아는 열기구로 둘러보는 것이 제일이다.

### 터키의 심장, 이스탄불

터키의 자랑은 역사와 문화를 품은 이스탄불. 그리스, 로마, 비잔틴, 이슬람 등 다양한 문화사적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하기아 소피아 성당과 예니 성당이, 서쪽으로는 세계 2대 이슬람 사원인 아흐메드 사원과 술레이만 사원이 자리 잡고 있는 이곳엔 궁전과 박물관, 터키-이슬람 미술관과 고대 오리엔트 미술관까지 볼거리가 가득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미술까지 집결하고 있다.

이스탄불을 말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랜드마크가 있으니, 바로 '블루 모스크'라 불리는 술탄아흐메트 모스크(Sultanahmet Mosque)다. 흥정과 실랑이로 정신없는 이스탄불, 그 한복판에 있는 술탄아흐메트 모스크는 평화와 고요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다. 커다란 돔이 바다 쪽을 내려다보며 위엄을 뽐내고, 뾰족하고 날렵한 미나렛(이슬람 신전에 부설된 높고 뾰족탑으로, 아랍어로 '등대'라는 뜻)이 하늘을 찌르는 외관은 블록버스터 애니메이션에 자주 등장하는 성과 매우 닮았다. 모스크의 정원에는 연인을 위한 벤치와 분수가 마련돼 있고 커다란 안뜰이 내부로 이어진다. 낮게 매달린 샹들리에가 푸른 타일에 빛을 던지고 차분한 분위기는 경탄과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

17세기 초 세워진 술탄아흐메트 모스크는 특히 여섯 개의 미나렛으로 유명한데, 이는 건설 당시 번역의 오류로 완성된 것이란다. 원래 황금 미나렛 하나를 세우려던 계획이 'altin(황금)'을 'alti(여섯)'로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지금의 모습으로 지어졌다. 그러나 천만 다행으로 술탄은 미나렛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고, 덕분에 여섯 개의 미나렛 모두 보존될 수 있었다.

여섯 개의 미나렛을 자랑하는 모스크는 내벽을 장식한 타일의 기조가 청색인 까닭에 '블루 모스크'란 애칭이 붙었다. 2만1000장 남짓의 청·녹·흑·흰 등의 화려한 이즈니크산 타일로 장식된 내부, 특히 꽃나무와 과일 등이 그려진 타일로 마감된 예배당은 오스만 제국 건축의 독특한 특징을 고스란히 증명한다.

한편 이스탄불은 현대미술의 격전지로도 부상하고 있다.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비엔날레를 비롯해 매년 열리는 아트 페어 또한 성황을 이루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동서교역의 관문이며, 지금도 아시아와 유럽의 문물이 교차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는 이스탄불에서 예술이 부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이 같은 이스탄불의 역사적·지리적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는 '이스탄불 비엔날레'는 이스탄불 문화예술재단(IFCA)이 주최하고 터키 정부가 후원하며 이스탄불 시내의 주요 관공서 및 유적지에 마련되는 미술 축제다.

창립 초기 터키 국내 작가를 중심으로 유럽 작가들을 초청했던 이 행사는 1989년 제3회부터 주제에 따른 전시기획으로 바뀌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터키 출신 미술평론가 바시프 코르툰(Vasif Kortun)을 영입해 '문화적 차별성의 생산'을 주제로 '중심의 해체'라는 개념과 비유럽적 시각을 다뤄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르네 블록(Rene Block)이 기획한 '오리엔테이션: 역설적 세계에서의 예술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47개국이 참가한 4회 비엔날레와 에스파냐 출신 마르티네스(Rosa Martinez)가 기획하고 40개국 86명의 작가가 참가한 5회 행사를 거쳐 현재 굵직한 미술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14 컨템퍼러리 이스탄불 아트페어 현장(위)과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 여행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술탄아흐메트 모스크.

### 문명과 역사의 중심, 앙카라

한편 고대문명이 한자리에 응축된 앙카라(Ankara) 또한 터키에서 놓쳐서는 안 될 명소다. 터키 수도 앙카라 주변에는 청동기 시대의 유적과 고대 히타이트 문명의 유적들이 산재해 있고, 특히 박물관으로 변모한 바자르에는 로마 프리지아 히타이트 구석기 시대의 유물들이 한가득 보관돼 있다.

오아시스 교역의 거점으로 아나톨리아 고원의 중앙부인 도시는 여러 국가와 근접한 탓에 부침이 심했다. 히타이트부터 아케메네스 조 페르시아, 셀레우코스, 로마로 이어지는 여러 외부 세력의 지배를 받았던 당시 '앙큐라'라고 불렸던 도시는 로마시대가 남긴 유적들로 가득했다. 로마제국이 분열한 뒤 비잔틴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잠시 사산조 페르시아와 아랍의 지배를 받기도 했던 터키와 앙카라는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비잔틴 제국이 셀주크 투르크에 패하자 투르크인들의 세력 범위에 들어갔으며, 이때부터 아나톨리아의 투르크화가 본격화됐다. 1073년에 앙카라는 셀주크 투르크에 예속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앙고라'라는 이름이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한 사건과 역사를 거쳐 1923년 터키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앙카라는 드디어 수도가 됐고 1930년 앙고라에서 현재 이름으로 개칭됐다. 중세의 모스크, 케말파샤의 묘 등 사적과 히타이트 유물로 가득한 박물관이 밀집된 도시, 앙카라에서 역사와 문명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 FOCUS

신입사원의 축제인 '2015 현대건설 신입사원 수련대회'가 지난 9월 22일부터 2박3일의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진행됐다.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패기 넘치는 함성만은 변함없었던 열정의 현장을 〈사보신문〉이 함께했다. 글=이영주 / 사진=송성훈

Go With PASSION!

2015 현대건설 신입사원 수련대회

## 뜨거운 심장을 품고 내일로 비상하다

### 지금 여러분은 몇 도입니까?

"99도의 물은 뜨겁지만 끓지 않습니다. 100도를 위한 당신의 마지막 1도는 무엇입니까?" 2015년 현대건설 신입사원 수련대회에서 비전 퍼포먼스를 앞두고 상영된 신입사원 제작 영상에 등장한 문구다. 신입사원 스스로가 던진 이 질문처럼 이번 수련대회는 15사번의 무한 에너지가 가감 없이 선보인 자리였다.

'Go With PASSION'이라는 엠블럼이 새겨진 깃발이 펄럭이는 해비치 리조트에 197명의 현대건설과 현대종합설계 신입사원이 도착한 것은 9월 22일 오전 11시. 입사 후 2개월의 입문교육을 마치고 현업에 배치돼 실무를 익힌 지 6개월이나 지난 탓인지 입소식을 위해 리조트로 들어선 15사번의 모습에는 제법 듬직함이 묻어났다.

"원래는 6월이었던 신입사원 수련대회가 메르스 확산 등의 이유로 가을로 연기됐습니다. 당시에는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다 동기들을 만나니 더 반갑고 애틋한 감정도 큰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라루르즈 정유공장 현장의 정광재 사원은 해외에서 오느라 퍼포먼스 연습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걱정하면서도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2박3일 만큼은 서투른 업무도, 어렵기만 한 선배도 모두 잊고 갑춰둔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시간. 입소식 이후 표선해수욕장에서 열린 '열정 올림피아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졌다. Primary, i fuerza!, Together, G.I, Family, H-beam 등 각조의 이름을 걸고 선수로 나선 신입사원들은 대형 애드벌룬을 굴리고, 사력을 다해 밧줄을 잡아당기거나 전력질주하다 잔디밭을 뒹굴기도 했다. 가을 해변을 더욱 뜨겁게 달군 것은 다름 아닌 씨름대회였다. 초반부터 시작된 팽팽한 신경전과 하를 찌르는 기술을 모두 제압하며 우승을 차지한 전력사업수행실의 서범석 사원은 모래를 흩뿌리며 포효하는 세리머니로 동기는 물론 운영진에게까지 큰 웃음을 선사했다.

### 비 온 뒤 땅이 굳듯이

수련대회 둘째 날 일정은 시작부터 험난했다. 운영진은 안전을 위해 기상청과 연락을 취하며 등반 일정을 서둘렀지만 한라산 어리목 주차장에는 빗방울이 흩뿌리기 시작했다. 한라산 등반코스 중 완만한 경사로 이어진 산길이 고산목과 화산암 사이로 펼쳐져 제주의 절경을 즐기기에 그만으로 꼽히는 영실코스. 하지만 풍경을 둘러볼 여유도 없이 점차 거세지는 빗줄기에 신입사원들의 조급한 발걸음은 더욱 바빠질 수밖에 없었다.

"비구름보다 저희가 더 빨리 정상에 오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개 낀 어리목 코스도 맑은 날 못지않게 운치도 있고요. 내려가서 마시는 하산주가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문정 7구역 지식산업센터 김건우 사원의 씩씩한 멘트에 3조 동료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이날 일정표에 표기된 하산시간은 오후 2시. 하지만 신입사원 전원이 어리목 주차장에 집합한 시간은 오전 11시30분이었다. 비록 코스와 일정에 변경은 있었으나 15사번의 단결된 힘과 저력을 보여준 '우중산행'이 아닐 수 없었다.

1 열정 올림피아드의 하이라이트였던 씨름대회. 2 3조의 뮤지컬 퍼포먼스. 3 정수현 사장이 만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4 복불복 추첨으로 이어달리기 선수로 나선 이재환 인사실 상무. 5 독특한 분장으로 시선을 끈 1조의 개그 퍼포먼스. 6 우승팀에게 주어진 요트 체험. 7 우중산행이었던 한라산 등반. 8 4조의 샌드아트 모습. 9 신입사원의 호응이 뜨거웠던 축하가수 레인보우의 무대. 10 정수현 사장이 신입사원과 함께 '붉은 노을'을 열창하고 있다.

오후에는 임원과 함께하는 만찬이 이어졌다.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폭우 속 강행군을 격려하고, 입사 40주년을 맞는 선배로서 배움의 자세를 늦추지 말라는 의미의 "'long learn' 하면 'long run' 한다"는 조언을 건넸다. 식사 후에는 신입사원 밴드의 오프닝 무대를 시작으로 비전 퍼포먼스의 막이 올랐다. 9월 초부터 신입사원들이 틈틈이 준비했다는 퍼포먼스는 분야별 전문가의 코칭이 더해져 여느 해보다 화려하고 완성도가 높았다. 1990년대 복고붐을 재현한 '토토가 댄스', 일상을 풍자한 '개그 퍼포먼스', 현대건설의 비전을 동작과 그림으로 표현한 '마임/샌드아트', 신입사원의 좌충우돌 회사생활을 노래와 춤으로 표현한 '뮤지컬', 태권도 시범과 과워풀한 북 연주를 선보인 '태권무 & 타악 퍼포먼스'까지. 끼와 재기 넘치는 무대가 마지막 밤을 뜨겁게 달군 가운데 영예의 대상은 하모니와 열창이 돋보였던 5조 '합창 퍼포먼스'에 돌아갔다. 이어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한 것은 정수현 사장이 신입사원과 함께 부른 '붉은 노을'이었다. 임원과 신입사원이 서로의 어깨를 힘껏 껴안으며 목청껏 외친 청춘가는 거센 폭풍우마저 잠재우며 제주도의 밤을 붉은 열정으로 물들였다.

### 바람을 등지고 미래를 향해

뜨거웠던 전날의 여파 때문인지 마지막 날은 다소 침착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다. 한 시간 넘게 이어진 정수현 사장의 특강은 신입사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졌을 법한 다섯 가지 고민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됐다. ▶정체성 ▶직무 적응 ▶해외 현장 부임 ▶자기계발 ▶상사와의 갈등 매 주제마다 생생한 경험담을 곁들어 구체적인 돌파 방안을 이야기한 정 사장은 "휴대전화 수명이 점차 짧아지듯 많은 제품이 금방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만, 현장에서 피와 땀을 쏟은 우리의 창조물은 적어도 50년에서 100년 이상을 간다"며 건설업의 장점을 피력한 뒤 "우리의 업무는 성취감이 큰 만큼 사명감 역시 막강하기 때문에 젊은 시절 많이 경험하고, 많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며 자기 연마를 강조했다.

드디어 2박3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는 퇴소식과 함께 수련대회의 우승팀이 발표됐다. 초반에 진행된 열정 올림피아드, 응원전, 한라산 등반미션에서 1등을 놓쳤지만 비전 퍼포먼스와 팀 단합에서 최고점을 받은 5조가 종합점수 440점으로 3조와 4조의 추격을 제치고 '최고의 팀'으로 선정됐다. 조장을 맡은 인프라환경엔지니어링실 김영규 사원은 개인이 빛나기보다 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준 조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제는 추억을 안고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야 할 시간. 전날의 거센 폭우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상쾌한 가을하늘이 해비치 리조트를 떠나는 신입사원을 배웅했다. 덕분에 우승팀으로 선정된 3개조는 아쿠아플라넷으로 향하는 동기들과 이별을 고하고 요트 체험을 위해 중문으로 향했다. 기분 좋게 속력을 내며 물살을 가르는 요트에 올라탄 그들의 눈앞에는 맑고 푸른 바다가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 주목! 이 사람!!

### "이름부터 현대건설은 내 운명"

이현대 사원 / 플랜트수행실

이름 때문이라도 현대건설에 꼭 입사하고 싶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매시간 현대건설이 지은 풍경을 보고, 현대건설이 만든 길을 걷고 있는 거라고 자랑 중입니다. 간혹 이번 수련대회에서 엄정화를 패러디하고 한라산 등반에서 늦게 내려왔다고 저를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퍼포먼스를 위해 여장을 불사하며 최선을 다했고, 빗속 산행에 고생하는 여자 동기들을 챙기느라 조금 늦었을 뿐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살바를 잡는 순간 우승 예감이 왔죠"

서범석 사원 / 전력사업수행실

신입사원 수련대회의 전통행사인 씨름에서 우승하게 돼 너무 기쁩니다. 초반에 강력한 우승후보들을 피해 부전승으로 올라와 운이 좋았지요. 결승전에서 상대 선수의 살바를 잡는 순간, 어쩌면 이기겠구나 싶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여수집단에너지 건설공사 현장에 장기 출장 중인데, 역사상 길이 기억될 최대 규모의 현장이라면 지구 어디든 달려가 값진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 "안전모와 안전화가 이젠 너무 익숙해요"

이고은빛 사원 / UAE 원전 건설공사 현장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외 현장에 나가 최대한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스스로 해외 현장을 지원했습니다. 여자 동기 중에는 가장 먼저 해외 근무를 시작했는데 두려움보다는 아직 설렘이 더 큽니다. 현장은 숙소도 편안하고, 선배들도 배려해 주셔서 업무하기에 어려움이 없지만, 태어나서 처음 겪는 50도가 넘는 기온은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엔지니어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회사와 현장에서 근무하게 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 "스페인에 없는 단체행사와 동기애, 모두 신선했어요"

까를로스 사원 / 에너지환경연구개발실

스페인에서는 신입사원 단합행사나 동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 수련대회 내내 모든 프로그램이 신선했습니다. 연구개발본부에서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플랜트 사업본부나 현장 등 현업에서 일하는 동기들과 교류할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빗속에서 진행된 한라산 산행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힘들었지만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스페인의 친한 대학 동료에게도 현대건설 입사를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 "현대건설의 기업문화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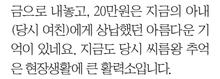
변기수 / 개그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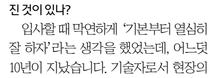
올해로 현대건설 신입사원 수련대회 사회를 5년째 맡고 있습니다만 매번 올 때마다 그 열정에 새삼 놀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신입사원도, 또 선배로서 편안하게 신입사원들과 어울리는 임원도, 다른 기업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역시 현대건설만의 진취적이고 인간적인 기업문화가 잘 드러나는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입사원 수련대회 사회뿐 아니라 직장인 대상 토크 콘서트 같은 것도 추진해 보고 싶은데, 불러주시지 않으실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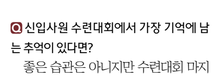
## Back to the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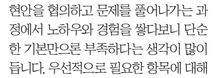
### 그때 그 시절의 수련대회

현대건설의 신입사원 수련대회는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장소와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신입사원과 임원이 한자리에 모여 뜨거운 추억을 공유했던 것만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80년대 신입사원 수련대회는 주로 강원도에서 진행됐다. 설악산을 오르고,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체육대회가 펼쳐진 가운데 참가자의 인기를 모은 것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씨름경기. 육중한 체구가 기술에 뒤져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몸과 몸이 뒤엉켜 마지막까지 버텨내는 모습은 도전정신이 충만한 현대건설인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현대인의 밤'이라 불리는 마지막 밤에는 신입사원이 준비한 무대가 펼쳐졌는데, 당시 신입사원의 퍼포먼스는 우리의 전통 민요나 국악에 맞춘 전통무용이 많았다고. 90년대 수련대회는 지금의 현대서산농장이 위치한 서산에서 열렸다. 해변체육대회에서 벌어진 비치발리볼과 씨름대회가 인기가 높았는데 씨름대회의 경우는 남녀 우승자 모두 특별히 마련된 가운을 입고 우승 가마를 타고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했다.








### interview

"10년 전 천하장사 추억은 지금도 힘이 됩니다"

임경묵 과장
조리법원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

**Q 10년 전인 2005년 신입사원 수련대회 씨름왕이다. 당시 치열한 경기 상황을 회상해 달라.**

씨름대회 선발 후보를 고르는데, 아마도 얼굴을 보고 다들 저를 선수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씨름은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은 뭐가 씌운 것처럼 힘도 팔팔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상대 선수들을 밀어붙였던 것 같습니다. 상금으로 당시 거금인 50만원을 받았었는데, 30만원은 동기 회식 때 찬조금으로 내놓고, 20만원은 지금의 아내(당시 여친)에게 상납했던 아름다운 기억이 있네요. 지금도 당시 씨름왕 추억은 현장생활에 큰 활력소입니다.

**Q 신입사원 수련대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좋은 습관은 아니지만 수련대회 마지막 밤에는 본부별로 회식도 하고, 동기들과도 아쉬움을 안주 삼아 과음하기 마련입니다. 당시에는 서산에서 수련대회를 했는데, 인근 식당에서 회식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술이 너무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동기가 있어 씨름왕인 제가 업고 주차장에서 영빈관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무척 힘들게 오르막길을 올랐는데 아직도 그 동기 녀석은 제가 업어준 줄 모를 겁니다. 하하.

**Q 동기들과는 여전히 각별하게 지내고 있나?**

다는 아니지만, 당시 같은 조였던 몇몇 동기나 같은 사업본부 소속의 동기들과는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종종 소주도 한잔씩 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각자 하는 업무도 다르고 고민도 많아 보이지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여전히 신입사원 때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음을 느끼곤 합니다.

**Q 어느덧 입사 10년차다. 당시 포부와 달라진 것이 있나?**

입사할 때 막연하게 '기본부터 열심히 잘 하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기술자로서 현장의 현안을 협의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노하우와 경험을 쌓다보니 단순한 기본만으론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 구체적 복안을 세우고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Q 15사번 후배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시련이나 고난이 닥칩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련을 잘 이겨내면 또 찬란의 빛날 내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고, 어떤 시련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 TOGETHER

연간 24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드는 북촌. 우리 회사가 낡은 재동초등학교 담벼락을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장소로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우리 회사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만든 화창한 가을날의 풍경 속으로! 글/사진=이희정

## “걷고 싶은 북촌길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하루 전날 임직원이 참여한 봉사활동 모습.

주말을 뜻깊게 보낸 임직원과 가족들.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주말**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17일 아침, 주황색 형광조끼를 맞춰 입은 현대건설 가족 봉사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의 미션은 우리 회사 직원들의 점심시간 산책코스이자 국내외 관광객이 몰려드는 재동초등학교 인근의 벽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것. 120년 전통의 재동초등학교는 역사가 깊은 만큼 외벽이 많이 노후돼 있었는데, 우리 회사의 ‘벽화 그리기’ 제안을 학교 측에서도 반가워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행사는 벽화공간 전문 사회적기업 ‘월메이드’와 함께했다. 보통 벽화 그리기 활동은 최소 3~5일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월메이트 소속의 아티스트가 2~3일간 보수작업과 스케치를 하고, 16일 오후에는 우리 회사 임직원 60여 명이 옹벽에 목재패널 부착과 1차 도포작업을 마쳤다.

드디어 전문 아티스트의 안내에 따라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고, 붓을 든 가족들의 얼굴에도 설렘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작업에 참여한 임직원과 가족들은 40여명.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도 미취학 아동에서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자랑했다.

이들은 전문가가 그려둔 밑그림을 다양한 색상으로 꼼꼼하게 채웠다. 때론 물감이 삐죽 튀어나오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아이와 부모가 협력해  완성하는 벽화는 그 어느 것보다 멋졌다.

“그룹웨어 게시판에서 모집공고를 보자마자 지원했어요. 아이들이 아빠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늘 궁금해 했는데, 이번 기회에 아이들에게 회사도 구경시켜 주고, 봉사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건축사업본부/조현욱 부장)

**오색 빛깔 물들어 가는 북촌길**

현대건설 가족봉사단이 그린 벽화는 한국 고유의 미를 느낄 수 있는 전통 기와지붕과 돌담. 단순한 듯 보이지만 비슷한 계통의 색을 여러 번 덧칠해 입체감을 더하는 것이 포인트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모양새를 갖춰 가는 옹벽의 모습에 가족들의 손길도 더욱 바빠졌다.

북촌 나들이에 나선 관광객들도 한쪽 벽면에 길게 늘어선 임직원과 가족들을 바라보며 “현대건설에서 나왔네” “멋지다” “동네 분위기랑 잘 어울린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영국인 관광객은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아무 특징 없는 벽면이었는데 지금은 모던하면서도 전통적인 분위기가 멋지다”라며 엄지손가락을 추켜올렸다.

시간이 깊어질수록 햇볕이 점점 따가워지고 임직원과 가족들의 이마에도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가족들은 얼굴과 옷에 페인트가 묻는 것도 개의치 않고 여러 번의 덧칠 작업을 마무리했다.

“살이 빨갛게 익을 정도로 더웠지만, 이렇게 아빠랑 함께 오늘 벽화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너무 좋았어요. 우리 가족이 힘을 합쳐 예쁜 길을 만들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인프라환경사업본부/ 윤인섭 차장 자녀 윤예지)

“가족과 함께 멋진 장소에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기억에 오래 남을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더 좋았습니다. 이제 재동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면 우리 민주랑 같이 칠했던 자리에서 잠깐 멈춰 쳐다보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경영지원본부/ 김현순 대리)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이날 봉사활동은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됐다. 붓을 내려놓은 가족들은 완성된 담벼락 밑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보람찬 하루를 마무리했다.

이번 벽화 그리기 봉사 활동은 가회동주민센터와 1사1동을 맺었던 인연으로 시작됐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 INTERVIEW Family

**“봉사도 하고 가족애도 쌓고”**
플랜트사업본부 김진모 차장 가족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정말 뜻깊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대화할 시간이 늘 부족했는데, 벽화를 그리면서 아이들과 못다 한 이야기도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북촌의 정취를 물씬 느껴요”**
PRM사업부 최관석 차장 가족
“아이들이 베트남에서 살다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족이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요. 날씨도 좋고 이렇게 가족과 함께 주말 오후를 알차게 보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회사 인근에 처음 왔는데, 무척 좋아해서 저도 뿌듯했습니다.”

##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젝트

### Global HYUNDAI! 세계 곳곳에 희망의 손길을 전합니다!

우리 회사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개발도상국에 희망을 전하고 있다. 해외 시장 진출 시 현장이 위치한 국가와 연계해 글로벌 CSR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것. 우리 회사는 2011년 필리핀 저소득층 교육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원을 시작으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 후 케냐의 식수개발사업, 카자흐스탄의 교육복지센터 건립, 모잠비크의 초등학교 건립 등 ▶보건위생 ▶교육장학 ▶문화교류 ▶빈민구호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우리 회사의 도움을 받은 나라는 베트남, 방글라데시,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케냐 등 12개국 17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 초에는 아프리카 우간다 진자시(市)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증축을 돕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태양광 랜턴을 전달했다. 또한 콜롬비아 보고타 지역의 아동을 위한 ‘해피홈스쿨’을 열고,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과 연계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우리 회사는 현대자동차그룹 편입 이후 ‘해피 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에 적극 참여해 중국, 대만, 인도 등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21일에는 베트남 ‘현대·코이카 드림센터’의 착공식을 갖고, 건설·자동차 인력 육성 교육의 터전이 될 교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 건립하는 현대·코이카 드림센터는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베트남 지역의 교육 불균형 해소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해피 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태양광 렌턴 보급 사업.

**12개국 17개 사회공헌 프로젝트**

| | |
|---|---|
| 베트남 | 지역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 중학교 무상건립/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후원/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건립 |
| 방글라데시 | 중학교 신축 및 교육장학사업 |
| 쿠웨이트 | 부비안 현장 생태계 보호 환경보호 캠페인 |
| 인도네시아 | 수질 개선 및 위생교육 사업 |
| 케냐 | 식수 개발 및 식수위생 사업 |
| 콜롬비아 | 안전·위생·주거 교육사업/ 체육교육 사업 外 |
| 카자흐스탄 | 교육복지센터 건립/ 문화교류 사업 外 |
| 필리핀 | 커뮤니티센터 건립 |
| 모잠비크 | 초·중학교 건립 |
| 우간다 | 초등학교 증축/ 태양광 렌턴 보급 |
| 스리랑카 | 건설 직업훈련센터 건립 |
| 우즈베키스탄 | 주택 개선사업, 학교 건립 |

# COLUMN

## 생각의 좌표

# '順夷(순이)'와 '逆夷(역이)'

〈착한 오랑캐〉 〈나쁜 오랑캐〉

후금(後金)의 2대 황제 홍타이지 동상.

최근 500년 역사에서 동아시아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인구 100만 명 남짓한 만주족이 인구 1억 명에 달하던 명(明)나라를 패퇴시키고 중국 대륙의 안방을 차지한 일이다. 수백 년간 소규모 부락 단위로 갈래갈래 찢어져 조선과 명의 변경(邊境)을 약탈하거나 원조를 받으며 연명하던 여진족이 17세기가 열리자마자 세계사와 동아시아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인구 수도 적고 농업·상업 등 산업 역시 미비했던 악조건을 모두 이겨내고 당시 동양 최고의 문명국을 정복시킨 만주족의 힘은 무엇일까?

### 順夷를 택한 조선

서기 1600년까지만 해도 조선에 비해 한참이나 뒤졌던 가난하고 미개한 만주족은 불과 한 세대 뒤에 한민족을 무릎 꿇리고 주인 노릇을 했다. 실로 기적 같은 변신이자 역사의 대반전이다. 한민족은 1637년 1월 30일 서울 송파구 삼전도 들판에서 왕과 신하들이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은 후 분발과 각성을 통해 국운(國運) 부흥을 모색해야 했지만 성리학적 도그마(dogma)에 빠져 공리공론을 일삼다가 270여 년 만에 이번엔 '섬 오랑캐(島夷·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다.

한민족과 만주족의 뒤바뀐 운명의 원인을 찾는 데는 중국 동북부 지방에 산재해 있던 여진족을 통일하고 후금(後金)을 세운 창업주(태조) 누르하치의 리더십과 특유의 군사 및 정치제도인 팔기제도, 아버지 누르하치를 능가하는 용병술과 지략(智略), 경영능력을 발휘한 2대 황제 홍타이지를 빼놓을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민족 지도부의 집단사고방식, 구체적으로는 중국 대륙을 보는 시각과 전략이다. 조선의 지배층이 즐거이 명나라의 영원한 신하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랐다면, 만주족 지도부는 명을 정벌할 수 있고 지배할 만한 대상으로 간주하고 야심을 키웠다. 즉 조선은 중국을 '하늘(天)'로 보고 섬기려고 한 반면, 만주족은 정벌할 '땅(地)'으로 봤던 것이다.

지도부의 국가 경영목표도 판이했다. 조선은 충효의 유교이념이 구현되는 예의지국(禮儀之國)을 건설해 소중화(小中華)가 되는 게 최고의 과제였다.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펴며 조선 실리에 진력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중화사상과 성리학적 사고에 사로잡힌 서인(西人) 세력들이 인조반정을 일으킨 게 이를 상징한다. 관념과 상상의 세계에 빠져 스스로를 좁은 울타리에 가뒀던 조선은 시간이 흐를수록 문약(文弱)에 빠져 잠재능력 이하로 작아졌다.

다시 말해 조선은 동이족(東夷族)으로 불리는 오랑캐이면서도 오랑캐 근성과 야성을 잃어버린 순이(順夷), '착한 오랑캐'가 됐다.

### 逆夷를 택한 만주족

반대로 만족족은 100배가 넘는 인구에다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부유한 명나라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기가 죽지도 않았다. 청나라 2대 황제인 홍타이지는 "천하의 주인은 한족(漢族)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덕이 있어 천명(天命)을 받으면 누구나 황제가 될 수 있다"는 유연하고 대담한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조선의 사대부들은 "중국의 천자는 한족만이 맡아야 한다"며 "한낱 오랑캐 추장(홍타이지)이 천자를 자처하며 황제로 등극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천하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실로 명나라 관리들이 울고 갈 정도로 명나라를 숭모했던 것이다.

'역이(逆夷)' '나쁜 오랑캐'를 자처했던 만주족은 스스로를 작지만 강한 족속으로 단련했다. 이들은 '허리 굽혀 살지 않겠다'는 굳센 자존심과 투지, 두려움 없는 용기와 호화·사치를 배격하는 검약 기풍, 명분보다 실리를 택하는 수렵민족 특유의 발 빠른 지략 등 '오랑캐 정신'으로 똘똘 뭉쳤다. 춥고 배고픈데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최악의 환경에서 발전시킨 극한의 생존 전략을 갖고 날을 세운 만주족의 집요한 공세에 중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조상들의 전략과 결단 덕분에 만주족 후예들은 추운 들판을 떠나 중원에서 훨씬 유복한 삶을 살았다.

만주족과 조선의 엇갈린 운명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것은 한반도에서 다시금 중국의 영향력이 정치·경제·외교·문화 등 전 방면에서 급증하고 있는 시대상황 때문이다. 총수출의 3분의 1 정도를 중국에 의지하고, 유커(遊客)에 목을 매고 있는 관광유통업, 안보와 영토·영해·역사문제에서 커지는 중국의 목소리를 볼 때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대하고 다뤄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400여 년 전 조선의 실패는 값진 교훈을 준다. '이웃의 큰 나라'를 상대로 공포와 상상에 빠져 스스로의 힘과 분별력을 잃을 때 남는 것은 쇠망과 쇠약뿐이다. 자신의 강·약점을 꿰뚫고 강점을 더 강하게 살리는 '逆夷 정신'과 '오랑캐 전략'을 오늘의 한국인들도 되새기며 실행해야 할 것이다.

**송의달**
조선일보 산업1부장

## 비즈니스 매너

우리 회사 직원들이 다양한 국가에 진출해 활약하고 있는 요즘, 작은 에티켓 실수 하나가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보신문〉에서는 세계 각국의 문화와 관습부터 국제사회의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문제까지 현대건설인이 알아야 할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를 연재한다.

#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간직한 국가 〈터키〉편

# 계약 성사라는 미션을 갖고 터키에 출장 온 현 대리, 첫 미팅에서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겠다고 다짐한다. 현지 파트너를 만나 친근하게 터키식으로 양 볼에 입을 맞추는 인사를 하려는데, 현지 파트너가 악수를 건네며 "나슬스느즈(nasılsınız: 건강은 어떠세요?)"라고 한다. 아뿔싸! 도대체 무슨 말인지. 현 대리가 공부한 인사는 "메르하바(merhaba: 안녕하세요)"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역사 얼굴만 쳐다본다. 이미지 만회를 위해 노력하던 중 "주문한 케밥이 어떻냐"는 질문에 힘차게 엄지와 검지로 OK 사인을 보냈는데,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는 파트너…. 도대체 무슨 실수를 한 걸까? 식사하는 내내 건넸던 정치 문제나 터키탕 이야기가 불편했던 걸까?

터키인은 한국인을 '코렐리(Koreli)'라고 부르며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터키와 한국의 관계를 두고 흔히 '형제의 나라' 또는 '피를 나눈 형제'로 표현하는데 이는 터키가 한국전쟁 때 유엔의 일원으로 참전했기 때문이다. 당시 터키는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했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사상자를 냈다. 이와 함께 2002년 한·일 월드컵 3·4위전에서 우리 국민들이 터키를 응원하는 모습은 터키인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터키와의 관계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터키인들은 자신을 투르크인이라고 부르는데 투르크는 국사시간에 많이 접한 '돌궐'의 다른 발음이다. 당에 밀려 중앙아시아로 이동하기 전까지 고구려와 동맹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터키인들은 16~18세기에 걸쳐 유럽, 아프리카, 중동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토를 보유했던 오스만 제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크다. 또한 1923년 터키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고 초대 대통령이 된 독립전쟁의 영웅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1881~1938년)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

터키인들과는 민감한 정치 이슈보다 터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축구 같은 스포츠를 주제로 대화하는 것이 좋다. 특히 중국, 프랑스 요리와 함께 세계 3대 요리로 꼽히는 터키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효과적이다. 300여 종이 넘는 케밥의 역사 또는 초콜릿과 커피, 차 같은 음식을 주제로 한 대화는 그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 것이다. 무엇보다 터키 커피는 오스만 제국부터 시작된 중요한 생활문화 중 하나로, 맛과 향이 훌륭하다. 터키인들이 보통 하루에 다섯 잔 이상 마신다는 '차이'는 터키의 홍차를 이르는 말. '차이'를 대접받으면 두세 잔은 마시는 게 좋은데, 충분하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싶다면 티스푼을 찻잔 위에 눕혀놓으면 된다.

아타튀르크는 "상대방을 잘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뿐 아니라 생각과 철학까지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에 성공의 날개를 달고 싶다면 터키인의 문화와 매너까지도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수다.

글=박영실 서비스파워 아카데미 대표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궁전인 돌마바흐체 궁전.

### 현 대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터키의 비즈니스 관습과 매너

1 터키인들은 비즈니스 첫 미팅에서 일반적으로 악수를 한다.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 악수를 조금 더 길게 하는 편. 안면이 있고 친한 사이라면 포옹을 하면서 양 볼에 입을 맞추는 인사를 나누지만, 비즈니스 미팅 시에는 악수가 무난하다. 만일 현지 파트너가 포옹을 하려 한다면 관계 형성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

2 첫 만남에서는 보통 "메르하바(merhaba: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하지만, "나슬스느즈(nasılsınız: 건강은 어떠세요?)"라고도 많이 한다. "이임, 테쉐퀴르 에데림(iyiyim, teşekkür ederim: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하면 자연스럽다. 또한 남성은 이름 뒤에 '베이(bey)', 여성은 '하늠(hanım)'이라는 호칭을 붙인다.

3 현 대리는 '케밥이 맛있다'는 긍정의 의미로 엄지와 검지로 'O' 모양을, 나머지 손가락은 펴서 만드는 OK 사인을 보냈다. 터키에서 특히 신경써야 하는 제스처 중 하나가 OK 사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좋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터키 일부 지역에서는 '동성애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4 적지 않은 사람이 터키탕에 대해 약간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터키의 공중목욕탕인 '하맘'은 로마제국의 목욕문화를 이어받아 오스만 제국 때 생긴 것으로, 오스만 제국 시대 금남의 지역 하렘에 갇혀 있던 왕궁 여자들의 아지트였다고 한다. 지금도 '하맘'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곳이 아니라 사교의 장(場)으로 활용되고 있다.

### 사우가 전하는 생생 현지 정보통!

터키에서는 '히잡'을 두른 여성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히잡'은 신성한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히잡' 쓴 여성을 대할 때는 언행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 공중목욕탕 '하맘'에서는 터키인들의 청결한 체모 관리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겨드랑이털 같은 체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개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들은 후 해수욕장 선베드에 누워서도 기지개 켤 엄두를 못내 슬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터키에서는 노천카페에 앉아 '차이'를 마시거나 보드게임을 즐기며 3~4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워낙 정이 많고 수다스러운(?) 터키인들인지라 금세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스탄불 술탄, 파묵칼레, 카파도키아의 열기구 투어는 터키의 필수 여행코스입니다. 저는 전통마을 사프란볼루, 현지인의 휴양지 체시메, 직물과 온천으로 유명한 부르사 등 조금 덜 알려진 곳들이 더 좋더라고요. 한 곳만을 추천해야 한다면 단연코 보스포러스 해협을 꼽겠습니다. 이스탄불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들이 집결한 곳이죠. 우리 회사가 보스포러스 제3교 공사를 마치면 멋진 투어 코스 하나가 더 추가되겠죠!

**이광철 차장**
터키 보스포러스 제3교 공사 현장

# TOPIC

지난 12일 언론을 통해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우리 회사가 국내 최초로 4명의 연구원을 동시에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시킨 것이다. 〈사보신문〉은 자랑스러운 얼굴들을 만나 등재 배경과 연구 성과 등에 대해 들어봤다. 글=박현희 / 사진=송성훈

## 현대건설의 기술연구 세계로, 미래로!

# 연구원 4인, 세계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리다

**우리 회사 연구개발본부 소속 지성현 부장대우, 김영오 부장대우, 서태석 과장, 문병욱 대리가 세계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 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6)」에 이름을 올렸다. 서태석 과장과 문병욱 대리는 영국 국제인명센터(IBC·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에도 등재돼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2곳에 동시 등재되는 영예를 안았다. 언급된 두 인명사전은 미국 인명정보기관(ABI·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힌다.**

(왼쪽부터) 연구개발본부 지성현 부장대우(해양에너지연구팀), 서태석 과장(첨단재료연구팀), 문병욱 대리(첨단건축연구팀), 김영오 부장대우(충주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R&D 사업 현장).

### 현장과 협업하는 기술연구

**Q 세계 인명사전 등재 배경이 궁금합니다.**

**김영오 부장대우** 언론 기사 덕분에 회사 사람뿐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축하를 많이 받았습니다(웃음). 저는 생물학적 하·폐수 처리 및 재이용과 혐기성소화(Anaerobic Digestion: 미생물을 이용해 폐수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에 관한 연구로 논문을 발표해 왔죠. 2016 세계 인명사전에는 혐기성소화에 수처리용 분리막을 결합한 '막결합형 혐기성소화(AnMBR·Anaerobic Membrane Bioreactor)'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성현 부장대우** 기술 연구는 연구소, 현장 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데 저만 인명사전에 등재돼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석션(Suction: 강한 기압을 이용해 물을 빨아들이는 것) 기초 연구와 준설 매립 시 준설투기장 준설토의 거동 및 초연약 지반 처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 매립 분야에 관한 논문도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Science Citation Index)'에 게재돼 있고요.

**서태석 과장** 콘크리트 재료 및 시공 분야 핵심 기술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수축 균열 예측 및 제어에 관한 연구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했고, 수상한 적도 있지만 인명사전 등재는 처음이에요. 많은 분이 축하하고 격려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병욱 대리** 저 역시 신기하고 기뻤어요. 더 잘하라는 의미로 알고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겠습니다(웃음). 저는 바람·지진과 같은 동적 하중에 대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특히 제진장치(Damping Devices:진동을 흡수해 억제시키는 장치)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Q 그동안의 연구 성과가 적용된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신다면?**

**지성현 부장대우** 제가 준설매립, 연약지반을 연구하게 된 건 1994년 입사 직후 맡은 첫 프로젝트 율촌 제1지방 산단 현장 덕분입니다. 착공 당시 916만1000㎡ 정도를 점토로 매립해야 했는데, 점토가 얼마나 들어갈지 예측하는 것이 제 업무였죠. 워낙 규모가 큰 공사이다 보니 오차가 조금만 나도 수십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었어요. 그때 건설신기술인 준설토의 침강(Sedimentation)을 고려한 설계로 준설 지반 거동을 예측하고, 건설신기술인 표층처리공법(Progressive Trenching Method)을 개발했습니다.

**서태석 과장** 시멘트와 물이 만나면 수화(水和)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열이 발생하면서 균열이 생겨요. 열로 인한 균열을 해결해 보자는 의미로 '연직파이프쿨링 공법(콘크리트 구조물에 파이프를 수직 방향으로 설치하고 냉각수를 주입해 수화열을 감소시킴)'을 최근 개발했죠. 문정2구역 엠스테이트·화양대교 주탑 콘크리트 등에 적용해 콘크리트 온도균열을 7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어요.

**김영오 부장** 환경은 종합 엔지니어링 분야예요. 기계, 토목, 전기, 바이오 등 모든 사업 분야가 집합돼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이라고도 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프로젝트는 현재 시공 중인 충주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R&D 사업이에요. 저는 연구 직원으로서 이 현장에 파이프 형태의 멤브레인(Membrane)을 이용해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악취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했죠. 현장은 내년 7월부터 정상 운전을 할 계획인데요, 개발부터 현장 적용까지 모두 참여한 이 현장이 저의 대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문병욱 대리** 진동 제어는 국내에서 20년도 채 안 된 연구 분야예요. 이제 활성화되는 분위기죠. 특수 분야이다 보니 개발된 기술들이 적용된 현장은 아직 없지만, 63층 규모의 부산국제금융센터 등 여러 현장에 기술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프로젝트에 우리 팀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 보탬이 되는 연구 할 것

**Q 건설사 연구원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서태석 과장** 저희 주 업무가 연구개발과 현장 기술 지원이에요.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하니까, 국내외로 출장이 잦은 편이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도 논문 쓸 때는 무척 꼼꼼해진다는 것도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웃음).

**지성현 부장** 저희도 현장만큼이나 '순간의 방심'을 조심하는 편이에요. 논문에 수치가 잘못 들어가면 실수로 보고 넘어갈 수 있지만, 설계서에서는 숫자 하나만 잘못 기입돼도 큰일나요. 그것으로 몇 백억원을 손해보거나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김영오 부장** 연구원들은 학교에서 공부만 하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분석하고 따지길 좋아하는 편이죠. 좀 피곤한 성격이랄까요(웃음)? 대신 인내심과 책임감이 강하다는 장점도 있어요.

**Q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편인가요?**

**문병욱 대리** 오른손잡이인데, 양쪽 뇌를 모두 사용하기 위해 왼손을 자주 사용해요. 단순한 일이지만 중학생 때부터 꾸준히 해 온 습관이죠. 연구원이니 제 분야에 대해서는 최신 기술이나 논문 검색을 꾸준히 해요. 아침 7시까지 출근해 한 시간 정도 전체 트렌드를 훑고 일과를 시작하는 편이죠.

**김영오 부장** 연구원도 샐러리맨과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직장생활을 신나게 할 수 있죠. 저는 주말마다 테니스를 치는데요, 특히 힘들었던 주간에는 더욱 힘줘서 공을 쳐요. 땀을 흘리고 나면 머릿속이 가벼워지면서 스펀지처럼 어떤 학문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죠(웃음).

**지성현 부장** 기술 분석할 때 내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함께 찾아봐요. 의외로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때가 있죠.

**서태석 과장** 결국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기자가 된 기분으로 현장 직원들과 인터뷰(?)하다 보면 연구 테마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사무실에만 있기보다 자주 현장을 찾는 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더욱 매진하고 싶은 연구 분야나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지성현 부장** 저는 요즘 국책 과제로 해양구조물용 석션 기초에 관해 연구하고 있어요. 이를 빠른 시일내에 상용화해서,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영오 부장** 하폐수 처리 및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등을 20년 가까이 연구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에요. 충주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R&D 사업 현장 운영이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설계에 참여하는 현대제철 폐수 재이용 사업도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태석 과장** 먼저 콘크리트 균열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고속 시공 기술 공법을 개발했으면 하는 목표가 있는데요,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연구로 회사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문병욱 대리** 연구 분야를 폭넓게 넓히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앞으로 연구개발본부에 '마스터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요. '연구 장인' 같은 의미라고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연구개발본부의 마스터가 되고 싶습니다.

김영오 부장대우 지성현 부장대우

문병욱 대리 서태석 과장

## 2007년부터 6년 연속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된 김대영 부장

김대영 부장(인프라지반연구팀)은 터널 관련 건설 신기술을 3건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터널굴착기(TBM·Tunnel Boring Machine) 굴착 모사가 가능한 회전식 암석커팅 시험 장치를 개발한 암반 및 터널 분야 전문가다. 그 동안의 업적을 인정받아 우리 회사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3대 인명사전에 2007년부터 6년 연속 등재됐다. "당시만 해도 우리 회사의 첫 사례여서 화제가 많이 됐어요. 3년 연속 등재됐을 때는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았죠. 이번에 4명의 동료 연구원들이 동시에 세계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기쁘고 뿌듯한 일입니다. 최근 연구개발본부 인원이 180명으로 많아졌고, 회사 차원의 지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좋은 소식이 많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웃음)."

김대영 부장은 현재 우리 회사가 지난 1일 턴키 공사로 수주한 주암댐 도수 터널 시설 안정화 사업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 공사에 TBM 공법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연구개발본부 지하 실험실에는 세계 최초로 TBM 공법을 연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실제 암석을 TBM이 굴착하면서 굴진 속도, 필요한 힘 등을 예측하는 거죠. 이 공법으로 공사하는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 안정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해외 지하철 공사 입찰 시 우리 회사가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욱 연구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이죠(웃음)."

마르퀴스 후즈 후 2015 사전.

# CULTURE

'만산홍엽(滿山紅葉)'. 글자 그대로다. 만산에 홍엽이다. 이맘때 누구나 맛보는 메인 요리도 단풍이다. 하지만 단풍이라도 다 같은 단풍이 아니다. 레시피에 따라 그 맛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개한다. 만추, 꽉 찬 가을을 즐길 수 있는 단풍 레시피. 글=신익수 〈매일경제신문〉 여행 전문기자 / 사진=한국관광공사·코레일관광개발 제공

## 이 계절에 느끼는 낭만 만산홍엽(滿山紅葉) 가을 단풍 여행

전북 부안 내소사 단풍길.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 가을에만 다닌다 … 단풍열차

**단풍열차 S트레인**은 대한민국 단풍 명소만 콕콕 집어 다닌다. 단풍 메카나 다름없는 남원 자락부터 지리산까지 죽 훑는 명불허전 코스다. S트레인은 다도를 즐길 수 있는 찻집이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기차다. 출발역은 서울역. 단숨에 남원으로 날아간다. 쉴 틈 없이 지리산으로 바로 이동해 단풍 트레킹을 즐긴다. 대표 포인트는 산골짜기를 따라 곡류하는 뱀사골. 트레킹이 끝나면 힐링 타임이다. 지리산 야생초와 개운한 허브차 한잔이 가을 정취를 더해주는 운봉 허브밸리에 앉으면 절로 스트레스가 훌훌 날아간다. 성춘향과 이몽룡이 인연을 맺은 곳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원 광한루원은 보너스.

당일치기 주왕산 단풍 트레킹 코스는 그야말로 스테디셀러다. 주왕산의 백미는 주산지. 김기덕 감독의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단단히 탄 곳이다. 30여 그루의 굵은 주름 왕버드나무들이 수면에 비쳐 거꾸로 박힌 모습은 신기하다 못해 기이하기까지 한 곳. 이 주산지를 품은 산이 주왕산이다. 수려한 경관과 거대한 암봉이 있어 국내 3대 바위산의 하나로 손꼽힐 정도. 당일치기이니 일정도 담백하다. 서울역을 출발해 안동역으로 훌쩍 달려간다. 경상북도 4개 군의 마을길과 산길을 이은 외씨버선길의 대표적인 코스인 청송 주왕산을 두루 훑는다.

해돋이와 단풍을 버무린 '무박 2일' 코스도 있다. 자정 직전 청량리역을 출발해 정동진역으로 달려간다. 해돋이 감상과 함께 여행 일정 스타트. 가을 해변을 잠시 거닐어 본 후, 단풍 자유 트레킹을 위해 설악산으로 이동한다. 특히 주전골은 설악산 내에서도 가장 수려한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 단풍 트레킹이 끝났다고 동해까지 가서 그냥 올 순 없다. 주문진 어시장에서 싱싱한 동해안의 해산물을 구경하고 강릉 갈골산자체험장에서 최봉석 식품명인의 한과를 맛보고 컴백.

> 트레킹이 끝나면 힐링 타임이다. 지리산 야생초와 개운한 허브차 한 잔이 가을 정취를 더해주는 운봉 허브밸리에 앉으면 절로 스트레스가 훌훌 날아간다.

먹방 투어를 원하는 미식가들에겐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있다. 전국 팔도의 전통시장만 골라 다니는 이 팔도장터관광열차는 가을 단풍 시즌에 단풍 열차로 탈바꿈한다. 코스도 입맛대로다. 11월 4일 딱 하루, 당일코스로 부산 기장역에서 출발하는 팔도장터관광열차 단풍 기차여행은 코스가 세 가지다. 6시쯤 기장역을 출발해 순천역과 남원역에 도착한 뒤 코스별로 내장산, 선암사·순천만, 지리산 단풍 트레킹을 즐긴다.

**단풍열차 즐기는 Tip**=코레일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www.korailtravel.com)에 문의하면 된다. 가을 단풍 기차여행 당일코스는 1인당(성인) 4만원부터. 무박2일은 6만9000원, 1박2일은 14만5000원부터다. 팔도장터관광열차 기장 출발 당일코스는 총 50만원 상당의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모든 탑승자에겐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5000원권도 준다. 1544-7755.

경기도 양평 용문사.

케이블카에서 본 내장산 가을 풍경.

### 5만원의 힐링 … 1박2일 템플스테이

이 가을 꼭 찾아야 하는 명품 사찰은 양평 **용문사**. 용문사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몸값의 가을 '명물'을 가지고 있다. 그 명물의 정체는 다름 아닌 은행나무. 용문사 대웅전 바로 앞, 바로 그 나무다. 다섯 그루의 은행나무가 절묘하게 서로를 감싸고 하늘로 뻗어 있다. 높이만 42m, 가장 굵은 둘레는 성인 7명이 팔로 감아 둘러쌀 정도인 14m나 된다. 천연기념물 30호인 이 나무의 나이는 1500살 정도. 정미의병 때 왜군이 이 사찰을 불태웠을 때도 이 나무만 살아 천왕목(天王木)이라 불렸고, 조선 세종 때는 정3품 벼슬인 '당상직첩'을 하사받기도 한 명목이다. 더 놀라운 건 이 나무의 몸값. 〈대한민국 가치 대발견〉이라는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서 그 가치를 책정했는데, 이 영물이 200년 정도를 더 산다고 가정했을 때 무려 1조6884억원에 달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용문사라는 절은 전국에 3개가 있다. 경북 예천, 경남 남해와 이곳, 묘하게 딱 3곳이 있는데, 위치상으로 양평 용문사가 용의 머리에 해당하니 '기도빨'이 빼어날 수밖에 없을 터. '미륵의 지혜'라는 '미지산(彌智山)'이라는 애칭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당연히 이곳 템플스테이는 가을엔 줄 서야 할 정도다. 용문사 템플스테이는 체험형과 휴식형으로 나뉜다. 휴식형은 주중, 주말에는 체험형 템플스테이를 즐기면 된다. 저녁 예불을 마친 후 스님과의 차담 시간도 독특한데, 일대일 면담이 아니라 템플스테이 참가자 전원이 모여 대화하고, 고민을 푸는 형태다. 이 템플스테이의 하이라이트는 용문사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 열매를 엮어 휴대전화 고리를 만드는 프로그램. 몸값이 1조6000억원을 웃도는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로 만든 휴대전화 고리이니 그 값을 따지면 천문학적일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본전을 뽑는다.

단풍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단풍 템플스테이 명소도 따로 있다. 대표적인 곳이 내설악 **백담사**와 전북 부안 **내소사**의 템플스테이. 설악산 중에서도 내설악은 핏빛 단풍으로 더 유명한 곳. 그 속에 둥지를 튼 백담사이니 가을엔 최고의 템플 명당일 수밖에 없다. 사실 백담사는 치유의 사찰이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치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통 단풍철에 선보이는 코스는 내설악 단풍과 함께하는 명상 트레킹이다. 단풍비 흠뻑 맞으며 산에서 공양하고, 내설악 속살 구석구석 누비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유홍준 교수가 한국의 5대 사찰로 꼽은 내소사도 백담사와 함께 단풍 양대 산맥으로 통한다. 늦가을 내소사 템플스테이의 테마는 역시나 단풍을 주제로 한 트레킹. 천년 고찰에서 자신을 찾은 뒤 내변산의 직소폭포, 제백이고개, 관음봉 삼거리, 전나무숲 등 인근 최고의 여행 포인트를 죄다 감상한다.

**단풍 템플스테이 즐기는 Tip**=템플스테이 공식 사이트(www.templestay.com)에서 다양한 단풍 명소 사찰을 검색할 수 있다. 1박2일 체험 비용은 보통 5만원에서 7만원 선. 공양, 원족 등 기본적인 템플 용어도 미리 배워볼 수 있다. 02-2031-2000.

### 기 받는 단풍 트레킹 … 월출산 기(氣) 트레킹

소백산맥 끝자락의 영암 **월출산**(809m). 가을 단풍 명소로 늘 붐비는 이곳은 전국에서 기가 가장 세다고 알려진 산이다. 오죽하면 조선 지리학자인 이중환이 『택리지』에 '화승조천(火乘朝天·아침 하늘에 불꽃처럼 기를 내뿜는 기상)'이라 썼을까. 월출산은 악산이다. 그만큼 바위가 많다. 사실 영암이란 지명도 악산을 칭하는 의미다. 월출산 자락엔 기 받는 길이 따로 조성돼 있다. 이름하여 '기찬 묏길'. 가을 단풍 속살을 보며 편히 걷는 둘레길이다. 길이 험하지 않아 평소에도 트레킹족의 메카다. 구간은 총 다섯 개. 40㎞나 되니 꽤나 길다. 이 중에서도 기가 제대로 뿜어 나오는 길은 제1 구간. 탑동소공원에서 월출산 기찬랜드까지의 6.7㎞ 루트다. 기 받는 트레킹을 끝낸 뒤 방점은 기찬랜드 온천으로 찍는다. 이 주변 암석은 묘하게 몸에 좋은 기운이 절로 뿜어져 나온다는 맥반석. 월출산 계곡의 스파와 함께 기체험센터까지 따로 마련돼 있으니 제대로 힐링하면 된다.

몸의 기를 채운 다음은 정신의 기를 채워 넣을 차례. 도갑사로 뛰어가시라. 월출산 자락의 대표 사찰답게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테마가 '기(氣)차게 놀자'다. 연 4회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기를 받는 월출산 산행과 함께 행복충전놀이로 구성된다. 영화 〈달마야 놀자〉에서처럼 스님들과 한판 놀기 게임을 벌이는 '노는 게 제일 좋아' 프로그램도 인기.

월출산 찍은 김에 꼭 둘러봐야 할 마을도 있다. 이름하야 **산청 동의보감촌**. 기찬 곳에 둥지를 트고 있는 기 받는 마을이다. 이곳엔 명물 '빅3' 바위가 있다. 석경, 복석, 그리고 귀감석. 기를 받는 곳은 귀감석이다. 어른 신장의 두 배만 한 바위 한가운데에 한자로 쓰인 황기라는 글자에 손을 대고 기를 받으면 된다. 심심할 땐 복석에서 운을 시험해도 좋다. 6t짜리 복석은 바닥에 엎어져 있다. 운을 시험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마음속으로 소원을 떠올린 뒤, 동전을 복석 위에 세워보면 된다. 세로로 딱 서면 소원 성취, 넘어지면 소원 실패다.

원기 회복을 원한다면 무조건 갈낙탕이다. 영남의 겨울 별미로, 탱글탱글한 낙지가 명불허전인 독천 낙지마을이 맛 기행 포인트. 맛이 어떠냐고? 한마디로 기차다.

**기 받는 단풍 트레킹 즐기는 Tip**=여행 문의는 영암군청문화관광과(061-470-2255), 도갑사 템플스테이 정보는 홈페이지(dogapsa.org) 참고. 061-473-5122.

# ART

지나친 소비지상주의에 편승한 모더니즘 디자인을 비판한 알레산드로 멘디니. 그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왕성한 작품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다.

## 삶이 모든 것이 디자인이다

## 멘디니 디자인 전시관

"삶은 아름다운 것과 연결돼어 있고, 그 모든 것이 디자인이다"라는 말을 한 이탈리아 디자이너 **알레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 사진 4)**. 지나친 소비지상주의에 편승해 흘러가던 모더니즘 디자인을 비판한 멘디니의 디자인은 곧 세계로 뻗어 나갔다. 이러한 그의 과거 업적과 현재까지의 왕성한 작품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다.

반항적이며 고정관념을 깨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그의 디자인은 마치 아이처럼 특유의 천진난만한 분위기를 지닌다. 동심으로 돌아간 듯 화사한 색채가 가득한 전시장 입구에는 밀라노 가구박람회 당시 선보였던 인형극장을 설치해 재미를 더한다.

기능주의 디자인을 비판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새로운 디자인 가능성을 열고자 했던 멘디니의 도전이 눈에 띄는 이번 전시에는 기본 질서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기능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실험적인 초기 작업이 대거 소개돼 디자이너의 열정을 가늠케 한다. 피라미드 위에 올려놓은 의자, 달리의 시계처럼 과장되게 투시되고 기울어진 의자, 기하학적 모양의 테이블, 화가 칸딘스키의 영향을 받은 형태의 의자, 해와 달, 지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조명, 인간 내면을 형상화한 기둥 등 상상력 넘치는 그의 작품 600여 점을 한눈에 볼 기회. 특히 이번 전시에는 한국의 해강 고려청자 연구소와 협업해 제작한 청자 의자 '청자 프루스트'가 소개돼 눈길을 끈다.

한편, 전시는 대표작품 외에도 1931년 출생 후 어린 시절 그의 관심사, 가족들, 전쟁에 대한 공포, 디자인 운동 참여, 디자인 비평가와 편집장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 행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그림과 사진들을 함께 선보인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동심을 잃지 않은 멘디니의 디자인 세계를 체험해 보자. 전시는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이어진다.

1

2

3

4

5

1·2 ANNA G
**Material**
Thermoplastic resin and chrome plated zamak

3 Amuleto
**Material**
murano glass
**Dimension**
50cm×H 60cm

4 Mobili per uomo lampada(왼쪽), Mobili per uomo Tazza
**Material**
glass mosaic and metal
**Dimension**
140cm×140cm ×H 190cm

5 Poltrona di Proust - Geometrica
**Material**
painted wood and fabric
**Dimension**
100cm×100cm×H 100cm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전시관**
2015.10.8~2016.2.28
02-2153-0000